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복합제 개발 초집중

한미약품 '아모잘탄플러스엘정' 10월 임상3상 종료… 상업화 속도

보령 '카나브 패밀리' 출시 예고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셀트리온 '암로젯정' 품목허가 지질인자·혈압 개선 효과 입증

로수젯 제품군 /한미약품

국내 제약 업계가 만성 질환에 집중해 복합제 개발에 역량을 쏟는다.

7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로수젯, 아모잘탄패밀리 등 자체 개발한 복합제의 성장세를 이어갈 후속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말 '제2의 로수젯'으로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 '아모잘탄플러스엘정'을 공개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최초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로 'HCP1803'을 연구개발해 왔고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임상 3상은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한미약품은 해당 물질에 대해 '아모잘탄플러스엘정'이라는 이름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등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아모잘탄플러스엘정은 서로 다른 세가지 작용 기전을 가진 항고혈압 성분을 낮은 용량으로 조합해 고혈압 초기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제다. 아모잘탄플러스엘정이 상용화될 경우 저용량 고혈압 복합제를 1차 요법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혈압 치료 현장에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한미약품은 현재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등을 대상으로 하는 6개 품목의 개량·복합신약들이 임상 1~3상 개발 단계에 진입하는 등 차세대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이 앞서 지난 2015년 출시한 로수젯은 '에제티미브'와 '로수바스타틴' 2개 성분이 복합된 전문의약품이다. 로수젯은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000억원대의 연간 처방 매출액을 올리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누적 처방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3분기 처방 매출액은 535억원을 기록했다.

고혈압 치료 복합제 제품군 '아모잘탄패밀리'도 한미약품 전문의약품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처럼 여러 용량과 성분을 조합한 제품군을 확장해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보령도 올해 '카나브 패밀리' 신제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보령은 최근 'BR1017' 임상 3상 결과를 공시한 바 있는데, 보령은 현재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개량신약 3제 복합제로 'BR1017'을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령은 본태성 고혈압과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동반한 환자에서 신약 후보물질 'BR1017A'와 'BR1017B'의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하는 임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 물질들을 병용 투여하는 요법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해당 물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것이 보령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령은 고혈압 2제 복합제 'BR1015', 고혈압·이상지질혈증을 적응증으로 한 4제 복합제 'BR1018', 고혈압을 비롯해 당뇨를 정조준한 'BR1019'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보령은 일찍이 지난 2011년 제15호 국산 신약으로 내놓은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해 왔다. 보령의 '카나브 패밀리' 제품군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누적 매출 700억원대를 기록하며 13%의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보령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치료제가 핵심 성장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령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 7602억원을 기록해 '1조 클럽' 입성을 앞두고 있다.

한편, 셀트리온제약도 '암로젯정' 품목허가를 통해 순환기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셀트리온제약은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암로젯정'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는데, 같은해 5월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암로젯정 임상 3상 연구에서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동반한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서 지질인자와 혈압 개선 효과가 우월함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만성질환은 말 그대로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고 일상 속에서 흔히 발병하기 때문에 복용 편의성이나 치료 극대화에 대한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세정그룹, 임원 인사… "경쟁력 강화 박차"

신찬희 이사, 3년만에 상무 승진
송희정·임세희·이시진 이사 선임

신찬희
세정·OVLR 신임 상무

송희정
세정 이사

임세희
세정 이사

이시진
OVLR 이사

국내 중견 패션기업인 세정그룹이 사업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세정그룹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매니지먼트 그룹'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각 부문별 핵심 역량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첫 단계로 지난 12월 자회사 신설법인 오뷔엘알(이하 OVLR)을 출범시키며 비전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세정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먼저, 세정그룹과 OVLR의 구매생산본부장, 브랜드기획실장, 액세서리(ACC)상품기획부장을 겸직 중인 신찬희 이사가 상무로 승진했다.

신 상무는 지난 2003년 세정에 입사한 이후 영업, 영업 상품 기획(MD)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세정그룹 패션 브랜드인 인디안 팀장, 사업전략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2년 이사로 임명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세정그룹과 OVLR에서는 총 3명이 신규 임원으로 선임됐다.

세정그룹은 송희정 WM상품기획부 데일리스트 팀장을 이사로 임명했으며, 패션 및 주얼리 브랜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임세희 이사를 새롭게 영입해 주얼리사업본부 디디에두보사업부장으로 선임했다.

OVLR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세정의 글로벌 투자와 신규 사업을 관리해 온 이시진 매니저가 이사로 승진하며 미래성장실장에 임명됐다.

세정그룹 관계자는 "세정그룹은 2025년을 '세정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대혁신의 해'로 선언해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임원 인사 또한 내부 승진, 외부 영입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사업 분야별 핵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韓,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

세계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

이종호(오른쪽) 과기정통부 장관과 일리아나 이바노바 EU 집행위원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이 세계 최대 연구·혁신(R&I)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으로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이 2021년부터 7년간 955억유로(약 144조 7000억원)를 지원하는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한국은 비유럽 지역 국가 중 뉴질랜드(2023년)와 캐나다(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참여는 호라이즌 유럽의 '필러 2' 부문인 '글로벌 문제 해결'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한정된다.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으로 한국 연구자들은 EU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호라이즌 유럽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제3국 연구자로서 직접 과제에 참여할 수 없고, 회원국이나 준회원국 연구자의 초청을 받아 협력 기관으로만 참여해야 했다. 이번 가입으로 총괄기관, 주관 참여기관 등으로 직접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내 별도 선정평가 과정 없이 호라이즌 유럽 과제 선정평가만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준회원국으로서 재정 기여를 통해 호라이즌 유럽의 연구비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혜민 기자 hyem@

KT, 장기 고객에 '모나용평 숙박권' 제공

16일까지 신청, 20일 당첨자 안내

KT가 새해를 맞아 1월 '초대드림' 혜택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초대드림은 스포츠, 축제, 캠핑 등 특별한 문화 이벤트에 장기 고객을 초대하는 장기고객 우대 혜택이다.

이번 초대드림은 1월부터 3월사이에 사용이 가능한 모나 용평 1박 숙박권과 스키 반일 렌탈, 리프트 반일권 제공 혜택을 준비했다. 다양한 가족 구성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인 가족은 호텔 디럭스 타입, 3인 가족은 타워콘도 18타입, 4인 가족은 빌라콘도 28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초대드림 응모는 오는 16일까지 KT 닷컴 '장기고객 감사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T모바일, 인터넷, TV 상품 등의 가입이 합산 5년 이상 고객이 대상이다.

당첨자는 오는 20일 개별 안내된다. 당첨되지 못한 고객들도 "꽝이어도 괜찮아" 혜택을 통해 모나용평의 숙박과 스키 렌탈, 리프트권을 할인받을 수 있다. KT는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게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마코빌, 캐릭터 '벨리곰' 게임속으로

퍼즐게임 '벨리곰 매치랜드' 출시

크로스미디어 콘텐츠 IP 스타트업 마코빌이 롯데홈쇼핑의 인기 캐릭터 '벨리곰'을 게임으로 재탄생시켰다. 마코빌은 7일 '벨리곰 매치랜드' 출시를 시작으로, 자체 IP 개발까지 아우르는 게임 라인업을 구축하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속력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 '벨리곰 매치랜드'의 주인공 '벨리곰'은 2018년 롯데홈쇼핑이 개발한 캐릭터로, SNS 팔로워 170만 명을 보유한 인기 IP다.

지난 2024년 11월에 출시된 '벨리곰 매치랜드'는 IP의 특성을 살린 퍼즐 게임으로, 폐장한 놀이동산 '벨리랜드'를 재건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귀여운 '벨리곰'과 함께 '꼬냥이', '자아도치'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IP에 최적화된 비주얼과 게임성으로 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캐주얼한 '3매치 퍼즐' 방식에 깊이 있는 콘텐츠와 도전적인 미션들을 더해 IP 팬들에게 최적의 게임 경험을 제공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귀여운 캐릭터와 사운드 등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와 함께 '놀이동산을 꾸미는 재미'와 '미션을 수행하며 레벨업하는 즐거움' 등 '벨리곰 매치랜드'의 긍정적인 후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